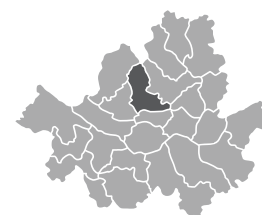


2019 종로랑 생활문화지도

종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종로랑



1 사업소개

- 개요 8
 - 네트워크 추진현황 10
-

2 2019 종로랑 활동내용 소개

- 종로랑 展 - 작은마을 이야기 14
 - 함께삶장 - 빌딩 숲 작은 쉼터 이야기 15
 - 종로랑 페스티벌 - 종로랑 놀자! 17
 - 종로랑 연말 콘서트 - 깊어가는 밤 18
 - 지역축제 연계 19
-

3 동아리소개

- 동아리 소개 22
 - 동아리 인터뷰 48
-

4 동아리 활동공간 소개

- 동아리 활동공간 70
-

부록. 권역별 동아리 현황지도

01

사업소개

- 개요
- 네트워크 추진현황

1. 사업소개

| 시민과 주민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생활문화

‘생활문화’란 시민과 주민 누구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예술 및 문화 활동을 말합니다. 예술 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단순한 문화예술의 향유자를 넘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치구 협력체계인 ‘거버넌스’를 통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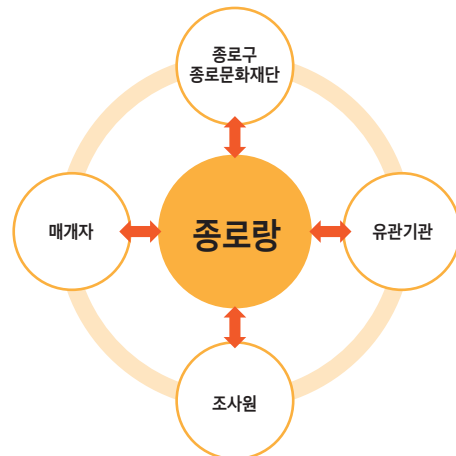
종로구와 종로문화재단은 2017년 생활문화 거버넌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총 112개의 생활문화 예술동아리를 발굴하였고, 이들이 모여 생활문화 네트워크 ‘종로랑’이 형성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종로랑은 탄탄한 유대와 공감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정기적인 네트워크 모임을 기반으로, 매해 연합전시와 축제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해왔습니다.

더 많은 일상예술가들이 언제나 원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가꾸어갈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종로구와 종로문화재단이 함께하고자 합니다.

| 추진체계

구분	협력내용
종로구청	- 생활문화 거버넌스 사업 운영 - 종로구 내 공간, 연관사업 연계 추진 - 생활문화 예술동아리 사업 프로그램 및 축제 기획운영
종로문화재단	- 재단 공간 및 문화사업 연계참여 및 활동무대 제공 - 생활문화 예술동아리 네트워크 연계 신규사업 유치 - 재단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규동아리 발굴 - 생활문화 예술동아리 사업 프로그램 및 축제 기획운영
유관기관	- 지역축제 참여연계, 유휴공간 활용 협조 등
종로랑	- 생활문화 프로그램 및 축제 기획·참여
매개자	- 신규 동아리, 유휴공간 발굴 및 연계 -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촉진·매개
조사원	- 신규 동아리, 유휴공간 발굴



| 총사업액

종로구청 38,000천원 (서울문화재단, 자치구 생활문화협력체계 구축사업)

종로문화재단 30,000천원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 추진방향

2017년

씨앗 뿌리기

- 실태조사
- 네트워크 형성
- 연합축제 개최

2018년

토대 구축기

-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강화
- 동아리 주도형 축제개최
- 동아리 전시·공연 프로그램운영

2019년

지속 가능기

- 민관협력체계 ‘종로 생활문화예술 기획단’ 구성
- 동아리 축제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 문화지도 제작
- 동아리 홍보채널 구축

| 종로랑 홍보채널

○ 종로랑 정보 및 활동

- 동아리 소개 및 공연, 전시, 축제 등 종로랑 활동 정보 수록
- 모두홈페이지 : <https://jongnorang.modoo.at/>



<종로랑 홈페이지>

○ 종로랑 활동지도

- 종로구 내 동아리 정보 및 주요 활동 공간 지도 수록
- 구글링크 : <https://goo.gl/YnyFTMQUgxfZaiEa8>



<종로랑 활동지도>

○ 종로랑 인터뷰

- 종로랑 활동 소식 및 인터뷰 기사 수록
- 종로문화재단 블로그(생활문화사업) https://blog.naver.com/jn_jfac



<종로랑 인터뷰>

| 네트워크 추진현황

연번	활동내용	일시	장소
1	동아리협의체 운영회의 - 협의체 운영 방향 설정, 역할분담 - 상춘재 전시 논의	2019.4.2.(화) 15:00	청춘여가연구소
2	전체 네트워크 모임 - 분과장 선출 - 상춘재 전시 논의	2019.4.23.(화) 15:30	종로문화재단
3	종로랑 전시 기획회의 - 전시 운영 방법 논의	2019.5.3.(금) 10:00	상춘재
4	종로랑 전시 기획회의 - 전시오픈행 행사 논의 - 홍보방안 논의	2019.5.16.(목) 14:00	상춘재
5	[행사] 종로랑 展 <작은마을 이야기>	2019.5.18.(토) ~ 5.26.(일)	상춘재
6	종로랑 전시 기획회의 - 종로홍보관 컨셉회의	2019.5.24.(금) 17:00	상춘재
7	공연분과 소모임 - 공연분야 활성화 방안 논의	2019.5.25.(토) 16:00	상춘재
8	마켓분과 소모임 - 네트워킹 - 종로홍보관 논의	2019.6.11.(화) 18:00	다담숨씨 공방
9	전시분과 소모임 - 종로홍보관 답사	2019.6.16.(일) 14:00	종로홍보관
10	[행사] <함께살장> - 빌딩 숲 작은 쉼터 이야기 1	2019.6.17.(월) ~ 6.21.(금)	종로홍보관
11	공연분과소모임 - 동아리 정보공유 - 종로랑페스티벌 논의	2019.7.8.(월) 17:30	대학로 플러스카페
12	공연분과 소모임 - 동아리 정보공유 - 공연팀 기획공연 아이디어	2019.7.9.(화) 17:30	대학로 플러스카페
13	공연분과 소모임 - 신규동아리 정보공유	2019.7.10.(화) 17:30	대학로 플러스카페
14	전시·마켓분과 소모임 - 2019 운영점검 및 방향설정	2019.7.10.(수) 19:00	청춘여가연구소
15	전체 네트워크 모임 - 동아리 네트워킹 - 하반기 축제 및 행사 기획	2019.7.24.(수) 17:00	청운문화도서관
16	전시·마켓분과 소모임 -함께살장 기획회의	2019.8.9.(금) 17:00	청춘여가연구소

연번	활동내용	일시	장소
17	[행사] <함께살장> - 빌딩 숲 작은 쉼터 이야기 2	2019.8.20.(화) ~ 8.21.(수)	종로홍보관
18	종로랑 페스티벌 기획회의 (제1차) - 네트워킹 - 지역자원 발굴	2019.8.22.(목) 17:00	종로문화재단
19	종로랑 페스티벌 기획회의 (제2차) - 캐치프레이즈 선정 - 분과별 소그룹 논의	2019.9.4.(수) 16:00	웰니스센터
20	종로랑 페스티벌 기획회의 (제3차) - 공연순서 확정 - 제반사항 점검	2019.9.18.(수) 16:30	좋은공연안내센터
21	종로랑 페스티벌 기획회의 (제4차) - 페스티벌 최종 점검	2019.10.7.(월) 17:00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
22	[행사] <2019 종로랑페스티벌>	2019.10.12.(토)	마로니에 공원
23	종로랑 협의체 교육 (제1차) - 공동체/협의체 개념 및 역할 교육, 구성방안논의 - 종로랑페스티벌 후기 논의	2019.10.28.(월) 16:00	청춘여가연구소
24	종로랑 협의체 교육 (제2차) - 공동체/협의체 활동사례와 현황 - 기관별 지원사업 안내 - 조직문화 관리 컨설팅	2019.11.4.(월) 16:00	청춘여가연구소
25	종로랑 연말 콘서트 기획회의 - 공연장 답사	2019.11.7.(목) 11:00	종로구 일대
26	종로랑 협의체 교육 (제3차) - 공동체/협의체의 목적과 가치 - 종로랑 협의체의 구성과 협업구조 논의	2019.11.11.(월) 16:00	청춘여가연구소
27	종로랑 연말 콘서트 기획회의 - 장소 및 컨셉 논의	2019.11.11.(월) 18:00	청춘여가연구소
28	종로랑 협의체 교육 (제4차) - 조직운영규칙 수립 - '종로 생활문화예술 기획단' 구성 - 향후 사업 방향 논의	2019.11.18.(월) 16:00	청춘여가연구소
29	종로랑 연말 콘서트 기획회의 - 콘서트 최종 점검	2019.12.5.(목) 17:00	카페 블루다
30	[행사] 2019 연말 콘서트 <깊어가는 밤>	2019.12.8.(일) 17:00	상명아트센터 대신홀
31	종로 생활문화예술 기획단 정기회의(제1차) - 운영 후기 및 내규 세부 논의 - 기획단장, 서기, 총무 선발	2019.12.9.(월) 18:00	종로문화재단



02

2019 종로랑 활동내용 소개

- 종로랑 展 - 작은마을 이야기
- 함께삶장 - 빌딩 숲 작은 쉼터 이야기
- 종로랑 페스티벌 - 종로랑 놀자!
- 종로랑 연말 콘서트 - 깊어가는 밤
- 지역축제 연계

2. 2019 종로랑 활동내용 소개

올 한해 종로랑은
종로구 곳곳에서
종로랑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 종로랑 展 - 작은마을 이야기



사업명	종로랑 展 - 작은마을 이야기
사업장소	상촌재
사업기간	2019.5.18.(토) ~ 5.26.(일)
사업내용	총 8팀의 일상예술가들이 전통조각보, 공예, 민화, 사진, 프리저브드 플라워 등의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시와 연계한 오프닝공연까지 더해져 더욱 풍성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대효과	- 동아리 간 네트워크 유대 형성 및 동아리 역량 개발 - 종로구의 전통공간 활용을 통해 지역과 연계한 스토리 발굴, 주민들의 생활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기타	관람객 653명

| 함께삶장 - 빌딩 숲 작은 쉼터 이야기 1



사업명	함께삶장 - 빌딩 숲 작은 쉼터 이야기
사업장소	종로홍보관 & 청진공원 앞마당
사업기간	- 전시 : 2019.6.17.(월) ~ 6.21.(금) - 체험·마켓 : 2019.6.18.(화) ~ 6.19.(수) - 공연 : 2019.6.19.(수)
사업내용	총 12팀의 공예 동아리가 종로홍보관을 무대로 전시, 체험뿐 아니라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평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두 공연 동아리의 버스킹 공연까지 선보였습니다.
기대효과	- 동아리 및 종로랑 활동 홍보 기회 제공 - 동아리 주도형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활동 역량 강화 - 평일 접근성이 높은 지역구 홍보관 활용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일상의 쉼표 마련
기타	관람객 544명

2. 2019
종로랑
활동내용
소개

| 함께삶장 - 빌딩 숲 작은 쉼터 이야기 2



사업명	함께삶장 - 빌딩 숲 작은 쉼터 이야기
사업장소	종로홍보관 & 청진공원 앞마당
사업기간	2019.8.20.(화) ~ 8.21.(수)
사업내용	6월 <함께삶장>의 연속으로, 총 12팀의 공예 동아리가 참여한 체험·마켓 프로그램입니다. 부스별 현장 인터뷰 코너를 마련하여, 동아리 및 프로그램을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	- 연속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동아리 네트워크 및 응집력 강화 - 동아리 및 종로랑 브랜딩 효과 기대
기타	관람객 2,100명

| 종로랑 페스티벌



사업명	2019 종로랑 페스티벌 - 종로랑 놀자!
사업장소	마로니에 공원
사업기간	2019.10.12.(토)
사업내용	월별 네트워크 모임을 기반으로 역량을 키워 온 종로 생활문화 예술동아리 '종로랑'의 발표무대인 종로랑페스티벌은 총 4차례, 동아리들의 자발적 참여와 주체 하에 이루어진 기획회의를 거쳐, 축제 프로그램 전반을 구성하였습니다. 공연과 전시, 체험, 마켓, 현장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종로랑 활동 최초로, 동아리 연합 공연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	- 동아리 주도형 축제를 통해 활동 역량 강화 - 동아리 및 종로랑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마련 - 동아리 활동 홍보를 통해 개별 동아리 브랜딩 강화 - 동아리간 협력과 화합을 통해 네트워크 유대 형성 및 공동체 의식 강화 - 다양한 시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생활문화예술의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증진
기타	관람객 18,585명

2. 2019
종로랑
활동내용
소개

| 종로랑 연말콘서트 - 깊어가는 밤



사업명	종로랑 연말콘서트 - 깊어가는 밤
사업장소	상명아트센터 대신홀
사업기간	2019.12.8.(일)
사업내용	종로 생활문화 예술동아리 '종로랑'의 공연동아리가 한해를 마무리하고자 연말 미니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연명부터 공연장섭외 및 기획까지 동아리의 주도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문화향유자를 넘어 문화주체자로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기대효과	- 성과 공유 및 활동 점검 기회 제공 - 향후 활동 지속성 강화
기타	관람객 205명

| 지역축제 연계

종로구와 종로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유휴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종로 생활문화 예술동아리의 활동의 장을 넓혔습니다.



사업명	해화동 돛자리 음악회 (주관: 해화동주민센터)
참가동아리명	코리아하모니카필드
사업장소	재능교육크리에이티브센터
사업기간	2019.6.21.(금)



사업명	윤동주문학제 (주관: 종로문화재단)
참가동아리명	북촌밴드
사업장소	윤동주문학관 시인의 언덕
사업기간	2019.9.6.(금) ~ 9.9.(일)

2. 2019 종로랑 활동내용 소개

| 지역축제 연계



사업명	종로한복축제 (주관:종로문화재단)
참가동아리명	꽃보다장구, 씨나
사업장소	마로니에 공원
사업기간	2019.9.21.(토) ~ 9.22.(일)



사업명	돈의문 빵빠레 (주관:청춘여가연구소)
참가동아리명	동임조각보, 댄스공연차차차
사업장소	돈의문박물관마을 마을마당
사업기간	2019.10.18.(금) ~ 10.19.(토)

03

동아리 소개



전시

3. 동아리소개

회화
공예
기타

| 계동나무장이들 ktahnjs@hanmail.net



2016년 종로구 전통공예 강사과정 수강생들이 수업이 끝난 후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게 된 것이 '계동나무장이들'입니다. 공공의 재원으로 얻은 재료들로 공예품을 만들어 주민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목공예	계동	10~20명	30~40대	2016	월 2회

| 꽃마리 kwonajja@hanmail.net



규방공예와 구슬공예를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악세사리 작품을 만드는 동아리입니다. 다도를 시작으로 각종 규방공예 소품을 실용성을 강조해 만들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차와 수공예	예지동	3~10명 이내	40대~60대	2017	월 1회

| 느루핸드메이드 ssolgi78@naver.com



광화문 풀잎문화센터에서 만난 공예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수공예 동아리입니다. '한꺼번에 몰아치지 않고 오래도록'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처럼, 오래도록 천천히 보고, 공예의 가치를 나누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수공예	당주동	3~10명 이내	30대	2017	-

| 다담솜씨 sgs620@naver.com



2015년 혜화동의 작은 공방에서 시작된 '다담솜씨'는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네 꼬마들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인형들과, 소소한 생활소품들을 제작하여 전시와 마켓 등의 다양하고 재밌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손바느질, 채색화	혜화동	10~20명	30~40대	2015	주 3회

| 동임조각보 dure58@hanmail.net



작은 조각천을 이어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동임조각보'는 신동임 조각보공예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예동아리입니다. 준어린이 재활병원의 환아 어머니모임, '준사임당'과 킬트·가족 공예가들이 모여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겸해오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전통조각보	익선동	10~20명	30~50대	1998	월 1~2회

| 드림멘토픽처스 dreammentorlab@gmail.com



영상제작 소모임입니다. 2030청년들의 꿈과 재능을 이어주고 있는 조력자와 함께 건전한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모임의 주된 목표입니다. 영상에 관심있는 모든 문화인들이 대상입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영상제작	동송동	40명 내외	20대	2017	주 1회

| 플레 maria722@naver.com



2016년 여름, 혜화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뜨개라는 공통관심사를 발견하여 탄생한 손뜨개 공예 동아리입니다. 가족과 이웃 간의 소통과 자기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소규모 동아리입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손뜨개	혜화동	20명 내외	30~40대	2016	주 1회

| 리아제이 lia-jewelry@naver.com



커스텀주얼리를 제작하고 디자인하는 동아리입니다. 기성제품과는 다른 심플한 디자인으로, 일상에서 언제든 착용 가능하게 만든 것이 특징이며, 종로랑의 체험·마켓 프로그램을 통해 작품을 선보인 경험이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비즈공예	동송동	10~20명 이내	40대	2011	월 2회

3. 동아리소개

회화
공예
기타

| 명륜주방

종로랑

‘명륜주방’은 이웃만들기사업으로 반찬 고민을 나누며 모이게 된 요리 동아리입니다. 반찬을 만들어 먹기 어려운 청년, 워킹맘,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지어 나누면서,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요리	명륜동	20명 내외	40~50대	2017	월 1회

| 무케(MUKE) jiwonshin12@gmail.com



서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작가의 연합동아리입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미술에서 수공예품까지 일러스트, 타피스트리, 수채화 등 다양한 장르를 연구하고, 창조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회화, 공예	옥인동	3~10명 이내	20~40대	2016	월 1회

| 보담캘리그래피 bodam-calli@naver.com



독창적이고 멋이 담긴 손글씨로 작품을 만드는 동아리입니다.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감성 글귀를 손으로 쓰며,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들을 응용하여 작품을 만들고,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담아 선물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캘리그래피	교남동	3~10명 이내	30~40대	2018	월 3회

| 북촌감성 mun17hee@citizen.kr



핸드메이드 공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랫동안 북촌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두고 있는 주민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으며,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손뜨개	원서동	5명	30~40대	2015	월 2회

| 서울창작예술센터 seoulcenter@nate.com



‘한국전업예술가협회’를 통해 만난 사람들의 동아리입니다. 화가, 설치 미술,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 문화예술인들 간의 정보 공유 및 교류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가족공예	동송동	10명 이내	40대	2011	주 2회

| 소소



주부들이 모여 함께 캘리그래피를 하는 동아리입니다. 함께 전시회나 공연 등 문화활동을 하며 감상을 나누고, 각자의 감성을 녹여 글씨에 담아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캘리그래피	운니동	3~10명 이내	40대	2017	월 1회

| 슬로우멜로디 yikalos33@naver.com



손으로 천천히 작은 뜨개 소품을 만드는 동아리입니다. 독특한 색감과 감성을 녹여 소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100% 천연소재를 활용하여 순수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손뜨개	동송동	10~20명 이내	30대	2011	주 2회

| 아베끄(AVEC) artsejong@naver.com



불어로 ‘함께’라는 뜻을 가진 ‘아베끄’는 종로에 거주하는 지인들이 함께 모여 사진을 찍고,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해내는 동아리입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사진	부암동	10~20명	40 ~50대	2015	월 1회

3. 동아리소개

회화
공예
기타

| 오기꽃방 sun-ok111@hanmail.net



세상의 모든 꽃으로 어떤 공간이든 디자인하는 '오기꽃방'은 작은 공방과 함께 꽃디자인 클래스를 운영하는 동아리입니다. 눈으로만 보아도 설렘을 주는 꽃을, 다양한 시도를 통해 표현하고 가꾸어내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플라워공예	옥인동	3~10명 이내	20~40대	2018	월 1~2회

| 온애어 onaircandle@naver.com



따뜻할 온(溫), 사랑 애(愛), 이야기 어(語)라는 한자 뜻에서, 예쁜 향초를 만들며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캔들, 디퓨저, 비누 등 다양한 수공예품을 젊은 감성과 아이디어를 녹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캔들,향수공예	관훈동	10명 내외	20~30대	2018	주 1~2회

| 원에감성놀이터 copyhansol@daum.net



영유아 주양육자만으로 구성된 '원에감성놀이터'는 주민센터 이웃만들기 사업에서 꽃꽂이를 매개로 만난 동아리입니다. 해화동 주민들과 이웃 모두가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꽃꽂이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꽃꽂이	명륜동	10~20명 이내	30~40대	2017	연 10회

| 이소공방 eso1229@hanmail.net



은을 재료로 다년간 금속공예가로 활동한 최동익공예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동아리입니다. 다수의 공모전 입상 경력과 더불어, 종로랑의 체험·마켓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금속공예	동송동	10~20명 이내	40대	2011	주 2회

| 조약돌 haksan5960@hanmail.net



2012년에 처음 결성되어, 서예기법을 학습해 나만의 캘리그래피 서체를 개발하고, 창작하는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서예체험행사와 무료 가훈 써 주기 등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서예 서각	인사동	10~20명	50~60대	2012	주 1회

| 지스습 coolice0303@naver.com



인사동을 중심으로, 아로마테라피와 천연재료로 캔들, 디퓨저를 만드는 동아리입니다. 다양한 공예공모전을 비롯하여 중고생 대상의 교육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캔들 공예	동송동	10~20명 이내	40대	2011	주 2회

| 천연아미 gmhss@hanmail.net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생활용품을 만드는 동아리입니다. 피부염을 앓는 아이를 위해 시작한 연구가 동아리활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현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천연생활용품	운니동	10~20명 이내	40~50대	2015	주 1회

| 청림 nabby59@naver.com



사랑하는 반려동물 초상화를 그리는 섬유페인팅 동아리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터득한 물감 배합 기술에 감성을 녹여 다채로운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공예	동송동	10~20명 이내	40대	2011	주 2회

3. 동아리소개

회화
공예
기타

| 탱글드림 ktjeonga@naver.com



‘탱글’이라는 장르의 그림을 그리는 미술동아리입니다. 한 획, 한 획 작은 무늬를 그려넣어 하나의 큰 패턴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 마음을 힐링하고,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미술, 탱글	운니동	3~10명 이내	30~60대 이상	-	월 1회

| 토끼와여우작업실 olivete20@nate.com



흙을 소재로, 아기자기한 악세사리와 소품을 만드는 도자기공예동아리입니다. 정성이 담긴 디자인과 까다로운 제작과정을 소화하며,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도자기 공예	동송동	10~20명 이내	30대	2011	주 2회

| 티그레이스 dbitax@naver.com

종로랑

‘티그레이스’는 티에 대한 좋은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탄생한 티 제작 동아리입니다.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당신의 삶을 우아하게, 언제나 함께 할게요’라는 모토를 나누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차 만들기	통인동	10명 내외	20~40대 이상	2017	월 2회

| 평창동채색화동아리 myeleya@naver.com



평생 미술교육에 전념하였던 미술교사의 재능기부로 시작되어, 일상 속에서 그림을 배우고 즐기고 싶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학습하는 동아리입니다. 소재와 형식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표현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며,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미술	평창동	10~20명 이내	40~60대 이상	2018	주 1회

| 피콜로루쓰 rohcompany@naver.com



직장에서 만난 인연으로 탄생한 ‘피콜로루쓰’는 실버주얼리를 디자인, 제작하는 공예동아리입니다. 도형을 모티브로 하여, 깔끔하고 멋스러운 디자인을 연구하고 있으며, 종로랑의 체험·마켓프로그램을 통해 작품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주얼리디자인	동송동	10명 내외	30대	2017	월 2회

| 핸드마술소종로 kyung67g@naver.com



냅킨아트, 세라크레프트, 슈링클스아트, 은점토, 데님업사이클링 등 다양한 장르의 수공예를 펼치는 동아리입니다. 시계와 악세사리, 장식 소품 등 광범위한 일상용품들을 수작업하며, 공예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생활, 수공예	교남동	3~10명 이내	모든 연령	2018	월 2회

| 화진한국화민화연구소 liba97@hanmail.net



산수화, 민화, 공필화 등 우리 전통회화의 여러 부분을 초급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배우고 익혀 자기계발을 도모하는 모임입니다. 주민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 수업과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통회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전통회화	인사동	10~20명	20~60대	2010	주 1회

| 화향 jasper1108@naver.com



꽃, 민들레흙씨, 소라, 자개 등의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악세사리를 만드는 레진 공예동아리입니다. 핸드메이드 공예제작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분야에 재능기부를 통해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공예	동송동	10~20명 이내	30대	2011	주 2회

3. 동아리소개

- 회화
- 공예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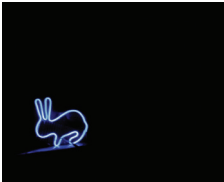
| 회재 minhwarang.lab@gmail.com



전통 민화예술동아리 ‘회재(囿齋)’는 민화를 그리며 느꼈던 행복을 나누고자 한마음으로 모인 동아리입니다. 일하는 여성으로,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된 엄마로, 장애우를 키워낸 가족으로, 제각기 다른 사연으로 만난 구성원들이 ‘기쁨으로 재개하길 소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전통회화	익선동	10~20명 이내	30~60대 이상	2017	주 1회

| TOKKIKO spot0128@naver.com



다양한 향기들을 조합하여,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향을 만드는 조향 동아리입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조향	인사동	3~10명 이내	20대	2016	주 3회

동아리 소개



3. 동아리소개

- 음악
- 무용
- 연극,기타

| 경희공유소오케스트라 osangeun@sm.ac.kr



종로구의 초·중고 학생들이 화합과 봉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오케스트라 동아리입니다. 탄탄한 연주실력을 기반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음악회, 홀몸어르신을 위한 음악회 등에서 공연을 올린 바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오케스트라	체부동	30~40명 이내	10대	2017	주 1회

| 고운매



‘아름다운 맵시, 또는 아름다운 여인’의 순우리말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소속 한국무용공연봉사단입니다. 2013년 한국무용 수업으로 시작해 2016년부터 공연봉사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무용	이화동	10~20명 이내	60대 이상	2016	주 1회

| 극단연 mryj2000@naver.com



연기와 연극에 관심 있는 종로주민들이 모여 만든 아마추어 극단입니다. 종로사랑지를 통해 직접 배우를 모집하고, 동네의 작은 극장에서 연극을 올리며, 이웃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극단입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연극	원서동	10~20명	전 연령대	2014	주 1~2회

| 기타의목적 baul73@naver.com



대학로 ‘식탁의목적’이란 이름의 식당에서 기타레슨을 주고받으며 탄생한 기타연주 동아리입니다. 클래식기타와 포크기타를 주로 연주하고 있으며, 매주 꾸준한 정기 연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18 종로랑페스티벌에서 이음아트홀 무대에 선 경험이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기타	명륜동	3~10명 이내	30~40대	2018	주 1회

| 꽃보다장구 aehee@mail.jongno.go.kr



삼청동주민센터 회원들로 구성된 장구 공연동아리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중년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종로구민이 함께하고 있으며, 매년 해맞이축제와 돛자리 음악회 참여를 통해 생활의 활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국악	삼청동	10~20명 이내	40~50대	2014	월 5~8회

| 노래공연 차차차 100040KJL@gmail.com



남녀노소 가요를 사랑하는 종로구민이 모여 함께 노래공연을 펼치는 동아리입니다. 노래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매주 정기 연습을 이어오고 있으며, 종로랑의 크고 작은 축제에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가요	이화동	13명	60~70대	2014	주 1회

| 누리단 skyarkim@hanmail.net



‘누리단’은 즐겁고 신나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시니어 난타 동아리입니다. 매주 정기 연습을 하며 다양한 난타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난타	신영동	40명 내외	60대	2010	주 1회

| 대학로에 jongno03@hanmail.net



연극단은 ‘대학로를 사랑하는 노인들’이라는 뜻으로 어르신 연극인들과 젊은 아마추어 연극인들이 모여 삶의 회로애락을 표현하는 세대통합 연극단입니다. 2011년 발족한 이후 대학로 D-FESTA 시민 대표 공연, 서울시민연극제 등 다양한 공연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연극	이화동	3~10명 이내	30~60대 이상	2011	주 1회

3. 동아리소개

- 음악
- 무용
- 연극,기타

| 댄스공연 차차차 10004OKJL@gmail.com



종로구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댄스동아리입니다. 미국에서 댄스 활동을 했던 동아리 대표를 주축으로 매주 꾸준히 연습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8 종로랑페스티벌을 비롯해, 종로랑의 다양한 무대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무용	이화동	3~10명 이내	60대 이상	-	주 2~4회

| 동극플레이임



청운초등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동극플레이임'은 '책 읽어주는 학부모 모임'에서 시작된 아마추어 아동극 동아리입니다. 2017년에는 "집 나가자 꿀꿀꿀"이라는 동화책을 동화구연 형식의 뮤지컬로 각색해 선보인 바 있으며, 늘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다채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동극	청운효자동	10~15명	40대	2017	주 1회

| 레이디스오카리나양상블 yeasung88@hanmail.net



플룻 연주를 토대로 한 오카리나 양상블 동아리입니다. 현재 종로구뿐 아니라 서울의 전 지역, 경기지역까지 아우르며 공연 활동 영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오카리나	원서동	10~20명 이내	50대	2017	주 1회

| 룰루랄라 choiseulk@naver.com



종로구노인종합복지관 회원들로 구성된 '룰루랄라'는 평균연령 75세의 아마추어 시니어 합창단입니다. 노래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똘똘 뭉친 '룰루랄라'는 꾸준한 공연과 봉사연주를 통해 이웃들과 함께 공감 하고,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합창	이화동	30~40명 이내	60대 이상	2016	주 1회

| 리베청소년오케스트라합창단 yusongline@hanmail.net



'리베청소년오케스트라합창단'은 음악을 통한 협동과 문화예술을 공유 하며, 정기연주회 및 청소년음악회 활동, 음악연주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오케스트라, 합창	연건동	40명 내외	10~20대	2010	월 2회

| 메아리 wjdghk0313@hanmail.net



종로 YMCA를 기점으로, 클래식기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폭 넓은 연령층의 회원들이 매주 정기연습을 통해 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 연주회도 개최하고 있을 만큼 활발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기타	청진동	10~20명 이내	40대	1978	주 1회

| 모이자덩더쿵 kyungok4052@hanmail.net



종로구민회관 한국무용반 회원과 평창동주민센터 한국무용반 회원으로 구성된 무용 동아리입니다. 여러 차례 마을 주민을 위한 봉사 공연에 참여하며 무대를 선보인 바 있으며, 끈끈한 유대와 화합을 바탕으로 동아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한국무용, 난타	평창동, 창신동	10~20명	50~60대	-	매주 수업시

| 무지개동화나라 blue7391@nate.com



종로구 노인복지관 무악센터의 회원들로 구성된 동화구연 동아리입니다. '그림책 읽어주는 할머니 동아리'에서 시작해, 꾸준한 구연동화 연습을 통해 지역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동화구연	무악동	10~15명	50대 이상	2016	주 1회

3. 동아리소개

- 음악
- 무용
- 연극,기타

| 뮤지컬하이 gto3481@naver.com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 연기 공부를 하며 공연 활동을 펼치는 뮤지컬 동아리입니다. 20~30대의 젊은 팀원들로 구성되어, 청춘의 일상을 극에 풀어내고 있으며, 꾸준한 공연활동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뮤지컬,버스킹	해화동	3~10명 이내	20~30대	2016	주 1~2회

| 반다데로사 jangpaul@ymail.com



라틴음악과 탱고, 재즈를 연주하는 밴드 동아리입니다. 기타, 반도네온, 바이올린, 첼로, 퍼커션, 피아노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자 솔로 활동을 해온 구성원들이 우연히 맞추어 본 합주를 통해 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연주 실력과 내공을 바탕으로, 여러 무대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라틴 재즈	원서동	3~10명 이내	30대	2019	월 1회

| 북촌다빈 soridream72@hanmail.net



대금, 소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연주동아리입니다. 2014년에 창단하여, 3차례의 걸친 정기공연과 연합공연을 펼친 바 있으며, 국악 방송에도 소개가 될 만큼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대금	계동	10~20명	50대	2015	주 1회

| 북촌밴드 bukchontak9@naver.com



개별적으로 음악활동을 하는 북촌 거주민의 연합 밴드동아리입니다. 주 1회 북촌의 작은 탁구장에서 정기 연습을 이어오고 있으며, 마을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나 축제에서 놀라운 화합과 끼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음악	계동	3~10명 이내	40대	2018	주 1회

| 비라댄스 biraacademy@hanmail.net



발리댄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무용 동아리입니다. 2018 종로랑페스티벌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연예예술대상 축하공연, 재능나눔위원회 축하공연 등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실용무용	종로1234가동	10명 내외	20~30대	2012	주 1회

| 서울청소년빅밴드 narmgyun@naver.com



재즈부터 시작해, 가요와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는 청소년 밴드동아리입니다. <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 <하이서울뮤직페스티벌> 등에 참여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여러 팀과의 콜라보무대를 통해 놀라운 호흡과 소통능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재즈	원서동	10~20명 이내	20대	2013	-

| 세검정첼보오케스트라



세검정을 중심으로, 음악을 사랑하고 클래식 악기로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이 모여 구성한 오케스트라 동아리입니다. 평창동 뜻자리 음악회, 마을 음악회, 실버센터 봉사연주 등 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오케스트라	신영동	10~20명	30~40대 (+자녀들)	2016	주 1회

| 소리나무가족국악오케스트라 miralee4@hanmail.net



지역 주민들과 가족구성원이 함께 단원을 이루는 국악공연 동아리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돈독함을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국악오케스트라	원서동	20~24명	30~50대 (+자녀들)	2017	주 1회

3. 동아리소개

- 음악
- 무용
- 연극,기타

| 소울소리판



한국의 전통적인 성악곡 중 하나인 판소리를 매개로 만난 '소울소리판'은 남도민요뿐 아니라 다양한 국악 장르를 노래하고, 창작작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어린이, 외국인, 지역별 등 구성원에 맞게 나누어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8년 종로 생활문화 예술동아리 연합축제 <종로랑 페스티벌> 에도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국악	해화동	10~20명	10~20대	1999	주 2회

| 시나몬주의보 lovewisoooyeon@gmail.com



젊은 감성과 재능을 겸비한 '시나몬주의보'는 팝 어쿠스틱 장르의 인디 밴드동아리입니다. 크고 작은 공연과 꾸준한 음악작업을 통해 듣는 이들에게 하여금 힐링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가요	원서동	3~10명 이내	20대	2017	주 1회

| 씨나(한국시니어종합예술원) sns044@naver.com



'씨나'는 이전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희생으로 살아온 엄마, 아빠들이 모델에 도전, 멋진 인생의 2막을 펼쳐가고 있는 시니어모델팀입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시니어 모델	평창동	10~20명 이내	60대 이상	2016	주 1회

| 언엔딩 und_space@naver.com



20대의 젊은 팀원들로 구성된 '언엔딩'은 발레와 한국무용,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무용을 선보이는 공연 동아리입니다. 다수의 축제 무대에서 끼와 재능을 발산한 경험이 있으며, 지속적인 버스킹 공연을 통해, 순수무용의 대중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무용	동송동	20명 내외	20대	2013	주 1회

| 예술연구소303 mokmk80@naver.com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공연을 하는 소모임입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연극	건지동	3~10명 이내	30대	2019	주 2회

| 우레 sheep2933@naver.com



2016년에 창단된 '우레'는 시니어 회원들로 구성된 난타 동아리입니다. 수개월의 연습기간을 걸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가고 있으며, 새로운 구성과 소품 활용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난타	이화동	10명 내외	60~70대	2016	주 2회

| 울루울루우쿨렐레 leejuongsuk@hanmail.net



종로구 노인복지관 무악센터에서 60대 이상의 음악을 사랑하는 종로구민이 모여 만든 우쿨렐레 연주동아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작은 우쿨렐레를 통해 교감하며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우쿨렐레	무악동	10~20명 이내	60대 이상	2016	주 1회

| 음협플루트오케스트라 bach2257@naver.com



플루트 레슨을 하는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여명의 단원들이 모여 정기 연주회를 비롯,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 공연에 힘쓰고 사회 원동력이 되는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오케스트라	체부동	30~40명 이내	10대	2017	주 1회

3. 동아리소개

- 음악
- 무용
- 연극,기타

| 작은오리



중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의 회원으로 구성된 '작은오리'는 오카리나를 연주하며 소소한 행복을 공유하는 동아리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60세 이상의 중로구민으로, 주마다 한 번씩 복지관에 모여 오카리나 공연 연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오카리나	무악동	10~20명 이내	60대 이상	2015	주 1회

| 조울

종로랑

극단 조울은 2013년부터 주부들이 모여 시작한 연극 동아리입니다. 2013년 11월 첫 공연인 <아카시아 잎은 떨어지고>를 시작으로 <굿닥터>, <우리 이제야 결혼했어요>, <복숭아꽃> 등 해마다 정기 공연을 이어왔습니다. 극본부터 연출까지 모든 과정을 단원들만의 힘으로만 완성시키며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연극	해화동	20명 내외	40~50대	2014	주 1회

| 코리아월드뮤직오케스트라 jangpaul@ymail.com



우쿨렐레, 오카리나, 플루트 등 다양한 생활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동아리입니다. 클래식 민요·팝·국악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생활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오케스트라	체부동	10~20명 이내	40~50대	2017	주 1회

| 코리아하모니카필드 smk602300@hanmail.net



하모니카 전문 강사들로 구성된 악기 연주동아리입니다. 크레믈로, 크로매틱, 다이아토닉 하모니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있으며, 마을음악회를 비롯, 여러 음악회에서 뛰어난 화합과 실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하모니카	창신동	20명 이상	50~60대	2012	주 1회

| 탱고아피스파 guitarmmge@naver.com



현직 배우들로 구성된 '탱고 아피스파'는 아카데미에서 탱고를 배운 배우들끼리 모여 만든 아마추어 탱고 동아리입니다. 2016년도에 처음 동아리를 결성하여, 정기 공연을 비롯, 서울댄스프로젝트 청년참춤, 경기도청소년연극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끼를 발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무용	해화동	10~20명 이내	30대	2016	주 1회

| 하모하모 go2424@naver.com

종로랑

'하모하모'는 주민참여공모사업으로 하모니카에 관심 있는 60세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 만든 아마추어 하모니카 연주 동아리입니다. 마을행사의 공연팀으로 출전하거나 요양원 등에서 공연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하모니카	무악동	20명 이상	60대 이상	2017	주 1회

| 한풀



순우리말로 '큰 기운'이라는 뜻을 가진 풍물 동아리입니다. 1987년 대학로 인근에서 동아리를 창단하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로구 일대에서 매년 정월대보름굿, 단오굿, 한가위굿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풍물	해화동	20~30명	30~60대 이상	2015	주 1~2회

| 황금나래 kwan0104@naver.com



시니어회원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댄스스포츠 동아리입니다. 정기연습을 통해 다져진 탄탄한 실력, 오랜 시간 함께해온 구성원들의 돈독한 정으로 꾸준한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댄스스포츠	이화동	10~20명 이내	60대 이상	2010	주 2회

| 앙상블 아미가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현악 4중주, 피아노	무악동	10명 내외	30~40대	2015	월 1회(수시)

| ‘Arte Core’ 아르떼코어 abracio@naver.com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오페라 합창단	평창동	10~20명	50~60대	2011	주 1회

| 독립문포크 기타 k-francisco@hanmail.net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포크기타	교남동	10명 내외	40~60대	2015	주 1회

| 메모리K songks1017@hanmail.net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사진	익선동,운니동	10~15명	40~50대	2014	주 1회

| 어깨들썩 희망 날개펼치기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장구,풍물	신영동,부암동	10~15명	40~50대	2015	월 1~2회

| ‘아미서재’ 드로잉수업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미술	계동	20~30명	50대	2016	1,2기 단기간 그룹모임

| ‘조물조물 짹짹’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공예	송인동	10~20명	30~50대	2015	월 1~2회

| 일본어 시낭독 모임 juju4u@hanmail.net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일본어 시낭독	부암동	20~30명	50대	2015	월 1회

| ‘무사 16’ 사진모임 369anm@hanmail.net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사진	무악동	10~15명	40~50대	2016	월 3회

| 북촌공예동아리 yomie1010@gmail.com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전통공예	계동	3~10명 이내	30~50대	2016	월 4회

| 위드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우쿨렐레, 홀라	해화동	10~20명 이내	20~30대	2018	주 2회

| 동산불교대학 한국춤반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한국무용	수송동	10~20명 이내	40대~60대 이상	2012	주 2회

| 줌바댄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무용	무악동	3~10명 이내	60대 이상	2018	주 1회

| 나이아가라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음악	무악동	10~20명 이내	60대 이상	-	주 1회

| 우리웃 연구 sun67429@daum.net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바느질, 퀼트	옥인동	10~20명 이내	50대	2018	주 1회

| 누상공방 pipi94@hanmail.net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공예	옥인동	10~20명 이내	20~50대	2016	-

| 브레멘음악대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음악	사직동	10명 내외	20~40대	2015	주 1회

| 한 땀 바느질 모임 hoyamom22@naver.com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퀼트 모임	효자동	10~15명	40~50대	2015	주 2회

| 이화 연극교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연극 모임	이화동	10~20명	50~60대	2015	주 1회

| 해오름 무용단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한국무용	부암동	3~10명 이내	60대 이상	2015	주 2회

| 창신골 풍물패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사물놀이	창신동	10~20명 이내	50~60대 이상	2003	주 2회

| 창창 (창작음악만들기모임) hamkyu10@naver.com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음악	창신동	3~10명 이내	20대, 40대	2018	월 2회

| 릴레이스타, 내가 봉제인이다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방송, 라디오	창신동	3~10명 이내	20대, 40대	2016	월 1회

| 뜨개안(安) kjjss@daum.net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대바늘, 코바늘 니팅	청운동	3~10명 이내	40대	2018	주 1회

| 나래 muguet_@naver.com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미술(식물세밀화), 한국무용	사직동	3~10명 이내	50대	2018	주 1회

| 아로마 DIY hws7857@naver.com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공예	교남동	3~10명 이내	40대	2018	월 2회

| 금준당(studio kjd) mjj12438@gmail.com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전통복식	사직동	3~10명 이내	20대~30대	2018	월 4회

| 서촌풍류방 irish514@hanmail.net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전통악기	누하동	3~10명 이내	30대	2018	월 2회

| 예그리나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요리(차 종류)	명륜동	3~10명 이내	50대	2017	월 1회

| 방 구석 탈출 itjj79@naver.com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전통놀이 연구	명륜동	10~20명 이내	40대	2018	월 1회

| 서울시 구립 여성 합창단 연합회 seoul.w.2013@hanmail.net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합창	체부동	50명 이상	50대	1996	주 1회

| 빛바람 bong3513@naver.com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합창, 중창	체부동	10~20명 이내	50대	1976	월 2회

| 푸실푸실 sooni@hanmail.net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영어 연극	송인동	3~10명 이내	40대	2018	-

| 멋과 숨씨 gowjd9711@hanmail.net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수공예 옷	교남동	3~10명 이내	40대~50대	2017	월 1회

| 호박씨 navue@naver.com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국악	익선동	3~10명 이내	50대	2019	월 1회

| 해금앤(해금&) ibeingwell@daum.net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국악	익선동	10~20명 이내	50대~60대 이상	2018	주 1회

| 달콤2막 brisa1004@hamail.net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연극	체부동	10~20명 이내	50대	2017	주 1회

| 오 공기 celi6355@hanmail.net

주요활동	주이용공간	평균참여인원	평균연령대	설립시기	모임주기
캘리그라피	옥인동	3~10명 이내	40대	2018	주 1회



동아리 소개

인터뷰

동아리인터뷰



| 전시

| 느루핸드메이드

광화문 풀잎문화센터에서 수공예를 가르치는 30대 공예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오랜 시간 함께 한 사람들이 동아리를 만들어냈다. 2017년부터 다문화가정과 장애인학교, 복지시설 등에 작품과 재능기부 전시회 등을 통해서 작은 기쁨을 알리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무궁무진한 융합이 가능한 공예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접목되어 새 작품을 탄생시키는 맛이 있다. 아이디어를 공유하다 보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종로랑 네트워크 모임 역시 미처 알지 못 했던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공예와 만나 새 창작의 길을 열어주어 좋다고 이들은 말한다. 느루는 '한꺼번에 몰아치지 않고 오래도록' 한다는 뜻으로 이름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행복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누구나 오래도록 가져가고 싶은 소중한 추억이 될 작품을 만들어간다.

| 다담숨씨

맑게 웃는 토끼들과 미소 짓는 아이들이 친구들처럼 주욱 늘어서 있다. 갖고 싶은 인형들이다. 이것을 누가 바느질하여 만들었을까. 동네 꼬마들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인형들과 함께, 소소한 생활소품 등을 만들어 전시와 마켓 출품을 하는 다담숨씨는 10명에서 20명 사이로 사람들이 모인다. 2015년 혜화동의 작은 공방에서 시작한 동아리로서, 손바느질과 채색화를 주로 한다. 1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들이 주 3회 이상 만나는 등 모임이 무척 활발하다. 다양한 연령층이 바느질을 통해 세대공감 하는 특징을 잘 살려, 더욱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려고 한다. 상춘재 전시와 종로랑 페스티벌에 작품을 펼쳐놓고, 작품을 응원해줄 관객들, 함께 더 신나는 행사를 만들어갈 동아리들을 계속 찾고 있다. 종로는 풍부한 전통문화 인프라도 있지만, 사실상 다양하고 재미있는 생활예술 동아리들의 활동이 많으며 그 중에서도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담숨씨 같은 동아리들은 정말 종로다운 사례다.

| 북촌감성

북촌 인근에 거주하거나 북촌에 생활권을 두고 있는 손으로 무엇인가 만드는 작업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활약하는 모임이다. 직접 만들고 스스로 완성해나가는 작업을 통해 성취감을 공유하는 북촌감성은 이름처럼 감성적인 모임이다.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모임이라 서로 작업을 응원하고 좋은 정보를 주고받는 데 정성을 쏟는 것은 기본이다. 같은 동네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만남에서 시작해서인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둘도 없는 동네친구가 되었다. 그 다음에 뜨개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열게 되었다. 그래서 뜨개보다도 서로의 이해와 소통이 중요하다. 4년간 만남을 가진 우리는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어보고 스스로 사용해본다. 자신들이 직접 사용하는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작업이다. 북촌골목장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만든 작품을 판매했는데, 직접 구매하는 분들의 좋아하는 얼굴표정을 볼 때 계속 정성을 들여 손으로 만들어내는 작품을 늘어 나가게 된다. 이때 수강 문의도 많이 받으므로, 마을 공유공간을 이용해 강좌를 개설하려 한다.

| 서울창작예술센터

한국전업예술가협회를 통해 만난 예술인들의 모임으로, 혜화동에서 주로 활약한다. 화가, 설치 미술, 공예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업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풀리지 않은 오랜 갈등을 갖고 있다. 현업에 종사하다보면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개인 작품 활동으로 외부와 단절되고, 예술인 사이에 정보교류가 부족함을 절감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임을 만들어 교류 하다 공동작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단순히 판매하기 보다는 각자의 창작활동을 성장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며, 아트마켓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작가의 스타일과 상황에 맞추어 전시를 기획하고, 다른 작가와의 협업을 하거나 학습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할 기회를 갖는다. 회화 전공자가 천연자죽공예를 공부해 작품활동을 하고 전시하는 경우도 있다. 현업 종사자의 실력과 전문가적 소양을 추구하는 전업예술가들의 동아리이기 때문에, 종로랑 네트워크 모임에서 새로운 분야 예술가들을 만나 함께 더 멋진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소소

그간 서예에 관심이 없던 가족들은 부모님이 직접 쓴 캘리그래피 작품을 보면서 놀라고 관심도 보였다. 서예를 해오신 어르신들께서 캘리그래피를 익혀 만든 동아리 소소는 가족들의 유대를 만드는 소통의 도구로 캘리그래피가 어떤 역할을 할까 고민하게 되고 보람도 느꼈다고 한다.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강의를 하는 등 각자 다양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 본격적으로 캘리그래피 동호회를 만들었다. 40-50대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이 키우는 이야기나 가족들의 추억, 청춘의 기억을 공유하면서 소소하게 굴러가는 매력을 갖고 있다. 전시회를 함께 보고 대화하고, 주부들의 공통점을 나누며 '힐링'한다. 캘리그래피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는 감성적인 표현수단으로 현재와 과거의 추억을 기록할 수 있으며, 서예에 비해 개성을 더 강조할 수 있다. 각자 감성으로 글씨를 쓰면서도 함께 모임을 하기 좋다.

| 아베끄(AVEC)

아베끄는 해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출사를 하는 사진모임으로 정겨운 종로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사람들로 빛의 영향을 받는 사진을 제때 제대로 찍으려고 꼭두새벽부터 만나 골목 곳곳을 누비다가 해가 뜨면 함께 아침 밥을 먹고 헤어지곤 한다. 같은 주제라도 서로 다른 시각으로 피사체를 바라보며 촬영하고 나면 색다른 결과물을 얻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감성, 각자의 개성 넘치는 감각을 느끼게 된다. 특별한 주제 없이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거리를 담곤 했으나, 2018년에 '문'을 주제로 종로의 골목골목 자리한 한옥의 대문을 카메라로 옮겼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대한 문화재의 근사한 사진이 아니라 실제 종로구민이 생활하는 소규모 생가들을 찍는다. 우리가 몰랐던 동네 속살 같은 장소들을 찾아가 작은 유산과 사연들을 기록한다. 심지어 사진을 찍어 인화하는 사이 사라져간 한옥들까지 전통으로 자료를 남기게 되었다. 2019년에는 '선'을 주제로 하늘과 어우러진 한옥의 선들을 촬영하는 식으로 사진가들이 모여 아카이빙을 해냈다. 아베끄는 프랑스어로 '함께'를 뜻한다.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다 보니 종로구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면서 소중한 일상의 역사를 기록하는 멋진 모임이 되었다. 사라지지 않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모아 종로구 풍경과 시간을 담겠다고 이들은 말한다. '작품이 좋아야 한다'는 결과중심의 동아리가 아니다. 그럴싸한 사진보다는 찍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함께 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커나가는 것이 아베끄의 자랑이다. 주소지별로 찍은 사진을 취합해서 한옥 스토리의 소책자를 만드는 목표를 갖고 있다.

| 오기꽃방

청운동의 작은 꽃방에서 10여 명이 함께 모여 꽃 디자인을 하는 동아리로 세상의 모든 꽃, 어떤 공간이든 디자인해낸다. 오기꽃방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서촌에서 활동한다. 원래 호텔과 웨딩에 쓰이는 꽃들을 만들어왔는데, 화려하고 아름다운 생화를 어떻게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공화를 만드는 작업에 집중하게 되었다. 상촌재의 종로랑 전에서 선보인 작품들은 모두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프리저브드 플라워' 계통의 작품들이다. 까다로운 보존과정을 거치는데, 일반적인 드라이플라워에 비해 더 선명한 색과 질감을 간직하고, 생화가 갖는 부드러운 촉감을 오래 유지하기 때문에 천일화라고 부른다. 바라만 봐도 설렘을 주는 꽃을 통해 소소한 힐링을 주고 싶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오래 꽃을 보면서 사람들이 누리는 잠시나마의 여유를 연장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종로랑 활동으로 전시를 경험하면서, 다른 공예분야 선생님들과의 협업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를 느꼈다. 단순히 개인 블로그로 작품을 알리거나, 단지 일로서만 꽃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는 경험을 할 수 있어 네트워크 모임이 고맙다.

| 온애어(溫愛語)

캔들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작은 공방으로, 20대와 30대 젊은 청춘남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캔들만들기 원데이클래스'에서 만난 사람들이 인연이 되어 시작하였고, 기타 수공예에 관심 깊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동아리를 꾸렸다. 온애어는 손으로 캔들을 비롯한 공예작품을 만드는 곳으로 한자어 이름 그대로 따듯할 온(溫), 사랑 애(愛), 이야기 어(語) 이다. 예쁜 향초를 만들며 오순도순 따뜻하게 모여앉아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다. 캔들 하나를 만들 때도 한 번도 말아보지 않은 신비로운 향을 내기 위해 분투하고, 툭툭 튀는 젊은 감각을 드러내려 애쓴다. 캔들과 왁스조형으로 종로랑 페스티벌에서 전시물품 뿐 아니라 마켓 재고까지 완판을 달성했다.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의 폴리마켓에 참여하거나,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 거버넌스25페어에 종로구대표 공예마켓 팀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인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하는 수공예 동아리를 지향하는 온애어는, 전통과 옛것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종로구에, 신진 예술가와 젊은 공예인들이 유입되어 새로운 조류와 융합하는 문화콘텐츠가 나오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찾아오는 곳이 될 것이니, 그에 일조할 것이라 말한다.

동아리인터뷰



| 전시

| 이소공방

24년 금속공예의 길을 걸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방을 열고 만든 은세공 동아리다. 직업훈련소 특강 등 강의 경험도 있지만 무엇보다 작품 만들기에 집중해왔다. 보석디자인공모전에 다수 입상하고, 대한민국평화예술제 특선도 했다. 오래 전에 부모와 함께 플리마켓 온 어린아이가 작품을 사고 좋아했었는데, 성인이 된 그 아이를 코엑스주얼리페어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한다. 그 아이는 같은 금속공예의 길을 걷고 있었으며 인터넷으로 수소문해왔었다고 말했는데, 그때 무척 뿌듯했다. 종로랑 '함께삶장'에 참여해왔고, '종로랑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다. 공예인들은 마켓과 페어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교류할 기회가 없는데, 종로랑 같은 네트워크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겨 기대가 크다. 새가 알에서 깨어나 동지를 떠나는 것을 '이소'라고 한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모험이 바로 동지를 벗어나는 날개짓으로 이소공방 역시 종로에서 멋진 비상을 꿈꾼다.

| 지스습

인사동에서 활동하며, 천연비누를 만들고, 캔들 공예를 하고, 아로마테라피를 추구하는 동아리이다. 어른이 되어 생긴 아토피가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안 잡혔는데, 아로마 테라피를 하면서 가라앉은 경험을 갖고 동아리를 만들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이 크다. 천연비누, 화장품, 소이캔들, 디퓨저 등을 만드는데 사람에게도 지구에게도 해로울 것이 없는 천연 재료를 사용한다. 초·중·고 및 대학교에 출강하는 등 강의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축제 행사 등 나가 체험활동을 벌이는 일에도 적극적이며 서울시 여성공예 대전에 입상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처럼 가정과 병행하면서 열심히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천연재료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사람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제품이 동아리의 자랑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더 큰 자랑은 화기에애한 동아리의 분위기로 모나지 않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강사 선생님들이 자아내는 사람의 향기가 곧 지스습이다.

| 천연아띠

익선동에서 천연재료를 이용해서 비누 등 건강용품과 생활용품 만드는 동아리로 아토피가 심한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몸소 경험하고 체득한 것들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동아리를 꾸리게 되었는데, 직접 수제비누를 만들어가며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여 내 아이의 피부병을 완치한 체험에서 출발한 소중한 동아리이다. 환경을 아끼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는 천연재료의 전파자로서, 천연비누 외에도 캔들 공예를 하는 등, 한마디로 건강의 향기가 가득한 제품을 만든다.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서 강좌를 열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플리마켓에 참여해 판매한 돈을 모아 기부활동을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경제활동과 더불어 재능기부의 가치를 키우고 싶어, 서로의 작품을 모니터링 해주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워나가는 데에 관심이 크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일상예술, 생활공예 활동가들과 만날 수 있는 종로랑 네트워크 모임에 기대가 크다.

| 청림

섬유페인팅과 일러스트를 하는 동아리로 스카프에 직접 붓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한다. 물감의 배합이 중요하고, 정교하게 해나가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특히 반려동물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 40여 년 전 전통공예를 다루는 일본회사에 다니면서 섬유페인팅을 배우고 그 기술로 다양한 그림을 그리는 동아리로 발전 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해온 일로 동아리를 만들어 계속하게 된 것이다. 주변에 알리고 가르치고 또 함께 하면서 동아리를 발전시키고 싶고, 종로구 소상공인 협회에도 가입되어 있다. '청년숲' 등 종로구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고, 종로랑의 '함께삶장' 축제도 열심히 나가고 싶다. 우리는 나이든 은퇴세대들이 부러워할 만한 활동을 한다고 자부한다. 그런 분들이 스스로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활문화 활동을 하도록 이끌어 내주는 일에 우리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사랑하는 반려동물 그림을 넣어 섬유 작품을 만드는 일과 함께, 어르신들이 취미를 특기로 살리고 전공을 갖게 되도록 해주려는 마음을 갖고 활동하는 동아리이다.

동아리인터뷰



| 전시

| 탱글드림

젠탱글이라는 장르의 그림을 그리는 미술 동아리로 익선동에 있으며 구성원은 50대 이상이다. 평생 미술을 배워서 해본 적 없고, 미술에 소질 없다고 여겨온 사람들 10여 명이 모여 활동하고 있다. 작품을 완성하고 전시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모임으로, 마치 청소년처럼 성장하고 있는 동아리다. 프로 예술가가 아니라도 끈기를 갖고 몰입하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한다. 패턴 그림에 관심이 생겨 습작을 하다가, 독학 후 미국에 가서 정식으로 젠탱글을 배우고 강사자격증 취득한 후 돌아온 한사람에서 출발했다. 강사로 활동하다 자연스럽게 동아리를 구성했다. 작은 패턴 하나가 가지를 치면서 나중에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되는 젠탱글 장르를 널리 알리고 싶은데, 거리를 배경삼아 크고 작은 전시회에 나가, 체험부스를 여는 적극적인 모습이 이들의 장점이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탱글드림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중으로 영리활동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림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힐링' 하게 만드는 도움을 주는 데 관심이 크다.

| 토끼와여우작업실

고양이와 강아지로 만든 도예작품을 만나려면 토끼와여우 작업실을 찾아야 한다. 애견애묘 컬렉션이라고 부르는 이들 시리즈는 대중들에게 인기가 높다. 활동지는 낙산공원 쪽으로 도자기 공예와 함께 조소기법을 활용한 섬세한 작업을 한다. 마로니에 이화예술시장에 참여하였고, 종로 청년숲에 선정되어 전시했다. 결혼 후 경력이 단절된 30대 여성들의 새로운 도전으로 모임이 출발했다. 도자공예가, 유리공예가, 조각가 등이 뭉쳐 만들어낸 작품들을 모아 3인의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아이들에게 도자공예와 조소기법을 가르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시회도 연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전시회에서 흙으로 강아지를 만들어가는 퍼포먼스를 할 때 관람객들은 열광한다. 고양이와 강아지 외에도 흙을 소재로 만든 악세서리와 아기자기한 소품을 기대해도 좋은 곳이다.

| 피콜로루쏘

삼청동에서 활약하는 주얼리 디자인 동아리로 구성원들은 30대들로서, 새롭게 결성되어 앞으로 활발할 모임과 작품 활동이 기대되는 곳이다. 피콜로루쏘는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친구들이 모여서 작업을 해오다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출강도 하고 축제와 장터 등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1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문을 활짝 열고 동아리 멤버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실버 주얼리를 연구하고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누구나 좋아할 만하면서 '유니크' 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많다고 말한다. 다양한 사람들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종로랑 네트워크 모임에 기대가 크다. 꾸준히 축제와 마켓에 나가 체험부스 운영하면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자신들의 작품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유니 한 디자인을 개발할 힌트를 얻고 싶다고 한다.

| 희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화수업을 인연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만든 민화그리기 동아리이다. 옛날 이름은 '민화랑'으로, 장애를 가진 가족을 둔 사람들, 장애인 복지와 봉사에 관심을 가진 분들,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일을 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에서 오랫동안 그림을 그린 이들이 마음을 모아, 장애인과 비장애인 연합의 비영리단체를 꾸리게 되었지만, 작업공간에서 만나 민화를 그리며 유쾌만발한 일들을 벌이는 밝은 동아리이기도 하다. 서울문화재단 주관 하에 전통문화 수업 '희희랑랑(喜喜朗朗)'을 진행하기도 했다. 동임조각보 선생님들과 함께 전시를 하는 것 같은 협업을 꿈꾸기도 한다. 장애 아이를 둔 엄마들이 당신의 삶을 반납한 채 늘 걱정과 불안을 안고 보호자로서 살아가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은 웃음꽃을 피운다. 다자라 성인이 된 자녀를 여전히 살신성인으로 돌보는 어머니도 있다. 우연히 봉사활동에서 만나 눈에 밝힌 아이를 가슴으로 낳아 길러낸 어머니도 있다. 이런 이들이 함께 그려 예쁘게 완성한 그림책을 보고 탄성을 지를 때 보람을 느끼는 동아리다. 자주 만나 그림을 그리면서, 장애인 가족 뿐 아니라 어떤 이든 삶의 무게를 덜고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힘을 길러내고 싶어졌다. 희재(喜齋)는 기쁨으로 공경한다는 뜻이다.

동아리인터뷰

◇ 공연

| 경희공유스오케스트라

체부동 10대들로 구성된 40여명의 오케스트라로서, 동네에 뉴타운이 건설되면서 만들어졌다. 기존의 주민들과 새 주민들 사이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예술교육학을 전공한 교수가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들을 한동네 아이들과 함께 모이게 해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탄생시켰다. 이들은 종로구 일대의 크고 작은 음악회에 나온 경험이 있으며, 돗자리음악회에도 참여했다. 청소년들은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중증장애인 음악회, 홀몸어르신 생신잔치, 복지시설에서 개최하는 음악회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배운다. 이들이 한 악기를 오래 연습하며 엉덩이의 힘을 길러내는 것 역시 대견하다. 오케스트라 연주는 3-4년 정도 시간을 들여 매진해야 하므로 끈기가 필요하다. 자신이 할애하는 시간에 비해 바로 두드러지게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것이 클래식 악기다. 어린 시절부터 평균 7, 8년 이상 한 악기를 다루고 익혀야 한다. 매주 정기적으로 연습하고, 싫증내지 않는 것이 대단한 일이다.

| 극단 연

북촌의 연극동아리다. 아마추어 극단으로, 마을공동체사업 일환으로 전 연령대의 종로 구민들 교류를 위해 만들어졌다. 종로사랑 등을 통해 연극에 관심을 가진 이웃을 모집해 극단을 꾸리게 되었다. 누구라도 쉽게 연극을 즐길 수 있도록 가족과 일상의 이야기를 담아 무대에 올린다. 소극장과 협력하여 다수의 작품을 창작했다. 북촌의날 행사에서 낭독극을 했고, 서울시한옥 마을가꾸기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으로 북촌소재의 극을 기획했다. 경복궁아트홀에서 '봉봉시스터즈'라는 코믹가족극을 만들고 통인시장 상인들을 초대해 활짝 웃게 하거나, 노인복지관 공연에서 연극을 보면서 기뻐하는 어르신 관객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연습공간이 부족하고, 오전에 연습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배우를 찾기도 쉽지 않다. 장시간 합을 맞추어야 하는 연극연습을 해내고 중간의 이탈을 줄이는 등 극복해야 할 것이 많지만 종로구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전달하는 주민의 대표극단으로서 자부심이 크다.

| 기타의목적

해화역 '식탁의목적'이라는 식당 공간에서 정기모임과 작은 하우스 공연을 하고있는데 그 식당 사장님에게 기타를 가르쳐주던 인연으로 '기타의목적' 동아리가 탄생하게 되었다. 보통 클래식 기타나 포크 기타 중 한 종류만 다루는 다른 동호회와 달리 두 악기 다 아울러 연주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동아리다. 연주를 잘 하는 편도, 무대활동이 많은 경험자도 아니었지만 둘씩날씩 연습에 빠지지 않고 게을리 하지 않았기에 종로랑페스티벌때 대학로이음센터 좋은 무대를 꾸밀 수 있었고, 음반작업도 계획 중에 있다. 기타의목적은 동아리 친목도모도 중요하지만, 기타연주 자체에 집중하는 편으로 합주뿐 아니라 기타를 배우는 사람이 완벽하게 솔로 연주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실력향상을 돕는 모임이다. 악기연습을 마치고 회식과 담소를 갖기도 하지만 최대한 악기를 배우고 연습하는 일에 집중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종로랑 네트워크 모임에서 음악동아리 분과위원을 하는 활동력도 보여주지만, 이름 그대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끈기있게 연주연습을 하는 이들이다.

| 꽃보다장구

원년 멤버들이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와도 쉽게 활동할 수 있는 등 7년 이상 탄탄하게 운영되는 종로구의 대표적인 장수 동아리인 꽃보다장구는 삼청동에서 주로 활동하는 전통사물놀이 팀이다. 삼청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함께 장구를 배우다 동아리가 되었고, 처음에는 직장인 팀과 주민 팀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일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주민센터에서 만나 장구연습을 꾸준히 해나가는 지구력 있는 팀이다. 종로구의 국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잔치를 벌이는 국악로대축제 등에도 나가고, 장르가 다른 전자음악밴드와 콜라보 무대를 꾸미기도 했다. 종로랑 페스티벌에서 시니어 모델팀 씨나의 무대를 보면서 새로운 자극도 받았는데 종로랑 네트워크 모임에을 통해 이런 팀들과 한 무대에서 만나 공동작업으로 풍성한 연합 무대를 꾸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연습 후에 맛난 다과를 비오는 날이면 부침개와 막걸리를, 곁들이는 것이 이들의 멋으로 끈끈한 유대와 인연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동아리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다. 정규 장구 강좌를 개설하여 또 다른 인연과 유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들이 내는 장구소리가 특별히 정겨운 이유다.

| 노래공연차차차 / 댄스공연차차차

신나는 성인가요와 무술댄스를 담당하는 동아리가 있다. 종로랑 네트워크 안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받는 60대 이상의 모임으로 '차차차'를 힘차게 외치는 분들이다. 종로구노인복지관 소속의 인연이 뭉쳐, 매주 수요일 만나 스포츠댄스와 가요를 연습하고 있는데, 춤과 노래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다. 종로랑 페스티벌에서 멋진 퍼포먼스로 박수갈채를 뽐아내는 것이 이들의 장기다. 정부 주관 경진대회에서 문화예술지도자 양성분야에 종로구 대표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더 많은 무대에 대한 욕심도 크다. 연극이나 판소리, 시니어모델 팀 등 다른 퍼포먼스를 하는 동아리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고 싶어, 종로랑 네트워크 모임을 나눌 때 기대도 크다. 이제는 마로니에 공원을 무대로, 직접 전국가요경기대회를 주최하게 되었다. 전국노래자랑 종로구편에 출연해 전국적 사랑을 받은 지병수 선생님도 함께 하여 즐거움과 열정 가득한 무대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들은 겁 없이 성장하는 신세대다.

| 레이디스오카리나앙상블

플루트와 피아노 전공자들이 만든 오카리나 연주모임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활동을 하는데, 클래식과 가요, 팝송, 무엇이든 종로 주민들을 위해 원하는 것을 연주해드릴 수 있다고 한다. 주로 여성연주자가 주를 이루며 15명 정도가 모여 활동한다. 반주와 함께 앙상블 곡을 연주하지만, 반주 없이 7가지 오카리나로 7중주를 해내기도 한다. 코리아월드뮤직오케스트라 동아리와 함께 대한민국 독도음악제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종로구에서 주최하는 토틀마루음악제, 종로랑페스티벌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 오카리나 연주의 최대 목표인 7중주 연주를 해낸 것에 보람을 느꼈고, 연주자와 문하생들이 오카리나&우쿨렐레 페스티벌에서 함께 즐기는 장을 만들어냈던 것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말한다. 레이디스오카리나 앙상블은 조화로운 앙상블을 이루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름다운 시간을 관객들에게 선물하는 팀이다.

| 롤루랄라

어려울 때 서로 기운을 북돋아주고, 모두가 동아리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오랫동안 함께 연습 하면서 가족이 된 회원들은, 연습이 늦거나 결석하면 걱정해주는 사이다. 얼굴만 봐도 서로의 기분을 안다는 이들은 이름처럼 상쾌한 기분으로 합창을 하는 공연봉사단체 롤루랄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연습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60대 이상의 구성원들이 모여 활력 넘치는 공연봉사단체를 만들었는데, 가곡, 가요, 동요 등 다양한 장르의 합창곡으로 공연을 한다. 경희궁유스오케스트라의 청소년 주민들과 함께 세대를 뛰어넘는 연합무대를 꾸미는 등, 종로랑 네트워크 모임에서 만난 다른 동아리와 콜라보 무대를 만드는 시도에 관심이 크다.

| 메아리

만 18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모임으로, 실제 30대에서 660대에 이르는 폭넓은 연령층이 있다. 1978년 종로YMCA에 처음 자리 잡은 역사가 있는 모임으로 정기연습과 정기연주가 전통으로 쌓여왔다. 초청공연이 많고, 다양한 무대경험으로 팀 화합이 좋으며, 실력이 승승장구했다. 2016년 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에 참여해 입상했고, 2017년에는 본선진출, 2018년에는 본선1등을 했다. 이들은 클래식 기타로 친목을 다지고 연주를 즐기는 동아리를 넘어서고자 한다. 찾아가는 음악회, 야외공연 등 공연장 장비 없는 곳도 기꺼이 간다. 의원원과 병원을 방문하는 봉사공연을 통해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을 기타연주로 어루만져주는 것이 이들의 일이다. 다른 공연 동아리와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를 만들어보려는 욕구도 커서, 종로랑 네트워크 모임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클래식 기타가 없거나 기타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동아리를 표방하고 있다. 진정으로 함께 배우고 즐기는 곳이다.

동아리인터뷰

◇ 공연

| 모이자덩더쿵

16년 전 작은 발표회에서 시작된 한국무용과 난타공연 동아리다. 노인들을 위한 공연을 요양원에서 시작되면서 점점 커져 모이자덩더쿵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86세 최고령자 회원님이 요양원 공연을 다녀와서 당신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데, 공연을 관람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당신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셨다며 보람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난타를 통해 마음을 치유해주는 일을 하고 싶다. 한국무용은 움직임이 부드럽고 아름다워 나이가 들어도 걸을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동아리 회원 중 몸이 불편한 어르신은 한 가지 동작을 익히는데 여러 개월 걸리지만, 꾸준한 노력 끝에 성취감도 느끼고, 점차 건강을 얻게 된다. 종로랑 페스티벌에서 살풀이 공연을 통해 외국인 관객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은 동아리다.

| 뮤지컬하이

20대와 30대로 구성되어 있고, 뮤지컬로 그들 자신의 이야기, 청춘들의 사연을 풀어내는 동아리를 표방한다.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가 구분 없이 함께 연기를 공부하면서 실제 규모 있고 내실 있는 뮤지컬 공연활동을 해내는 프로추어 뮤지컬 팀이다. 이들은 뮤지컬 동호회이기도 하지만, 2013년도에 결성한 후로 적극적으로 문화행사와 축제에서 공연을 하고 꾸준히 자체적인 정기 공연을 해나가면서 실제 뮤지컬 팀으로 무대경험을 축적해냈다. 서울시공연예술단 선발, 청춘 마이크사업 선정, 서울거리예술제 참여, 서울시민청 아티스트 선발, 보령머드축제 공연, 서울 유니브엑스포 오프닝 공연, 인디 및 아티스트 경연대회 입상 등 경력이 화려해졌다. 연극이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그리고 춤이 좋아서 모였지만, 무엇보다 지금 청년들의 나이에서 할 수 있는 고민들과 청춘의 일상을 풀어내어 관객의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 이들의 초점이다. 이들에게는 정기적 연습공간과 발표공간이 부족하다. 종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공간이 지원되고, 종로랑 네트워크 모임활동으로 다른 동아리 팀들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협력사업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한다.

| 반다데로사

반도네온, 바이올린, 첼로, 통기타, 피아노로 이루어진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6인조 밴드로 라틴음악, 재즈, 탱고를 연주하는 전문적인 모임이다. 개인들이 솔로활동을 하던 중에 만나 프로젝트 팀을 결성하게 되었다. 신생 팀으로 아직은 개개인의 실력들이 출중하지만, 곧 하나의 밴드로서도 큰 활약을 할 것이다. 함께 만나 연습하기에는 너무나 바쁜 당신들, 하지만 어떤 무대든지 적극적으로 올라갈 계획이다. 최근에 요요마의 리베라탱고를 완벽하게 재현해보는 도전을 해내고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지금껏 재현을 온전하게 해낸 팀이 없었기에 도전해봤다는 것이다. 자부심을 갖고 작품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은 준비된 팀이다. 다양한 장르의 다른 동아리들과도 무대공연을 함께 만드는 콜라보를 해보고 싶어, 종로랑 네트워크 모임에 기대가 많다 한다.

| 북촌밴드

개별적으로 음악활동을 추구해온 북촌 거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결성한 연합 동아리로 20대로부터 50대에 이르는 연령층이 모여 복합악기를 다루는 20여 명의 동아리 밴드다. 클래식 기타, 어쿠스틱 기타, 잼베, 우쿨렐레, 건반, 장구와 북에 이르기까지 주민 누구나 자신이 다루고 있던 다양한 악기를 함께 연주하자고 팀원을 구성했다. 매주 수요일, 마을의 작은 탁구장에 모여 악기레슨과 연습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규모 라이브클럽처럼 탁구장에서 공연을 열고, 북촌문화센터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나 동네의 크고 작은 음악축제에 참여하고, 마을 상점을 대관해 기획공연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유명하다. 음악장르와 연령대의 폭이 넓은 데도 불화가 없는 즐거운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도 자랑이다. 다양한 악기만큼 다양한 시도가 정점에 이른다. 연습공간이 협소하고 낮에 탁구교실을 운영하여 한계는 있으나 북촌탁구는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명소다. 가족과 동네 이웃을 초청해 '아무연주대잔치'라는 연주회를 열기도 하고, 출연진 사비를 들여 공간을 빌리고 품앗이로 가족음악회, 마을음악회를 만들어간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민에게 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동아리인터뷰

◇ | 공연

| 비라댄스

10대부터 30대까지 모여 있는 벨리댄스 무용 동아리로 친한 동생의 권유와 건강상의 이유로 벨리댄스를 시작한 리더가 어느덧 강의도 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무대에 서면서 공연을 만들 수 있는 동아리로 성장하게 되었다. 벨리댄스는 몸치인 사람도 도전할 수 있고, 팔을 뻗을 수 있는 좁은 장소에서도 연습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댄스 장르다. 생리통이 심할 때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등 특히 여성들에게 좋으며 무엇보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2년에 만들고 8년간 꾸준히 이어지면서, 안무가 탄탄해지고 표현의 난이도가 높아져왔다. 종로랑페스티벌을 비롯해 대한민국연예예술대상 축하공연, 재능나눔위원회 축하공연 등 활동을 넓혀왔다. 다른 동아리들과 콜라보 할 수 있는 기획이 가능해 종로랑 네트워크 모임이 좋다고 추천한다. 이들은 역시 난타와 오케스트라 팀 등과 협연을 하는 등 음악과 춤이 만나는 작품을 만드는 일을 즐기고 있다.

| 서울청소년빅밴드

10대와 20대가 모여, 재즈, 가요, 팝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자유롭게 연주하는 동아리이다. 실용음악을 전공하거나 해당분야 지망하는 학생, 음악실력 갖춘 아이들이 모여 활동하는 20여 명의 음악동아리로서, 주1회 체부동 연습실에서 연습과 합주를 하였으며 6년간 여러 무대에 섰다. 서촌오케스트라축제, 하이서울뮤직페스티벌 등 큰 무대도 섰고 윤동주창작음악제에도 참여했으며,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등, 전국각지의 음악공연 등에 나간다. 서울문화재단 생활예술 오케스트라축제 경선에서는 1등도 했다. 서울청소년빅밴드는 재능기부 활동에도 열성적이다. 이들은 학생들이지만 연주력은 프로페셔널 못지 않다.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고 음악 장르마다의 분위기를 카멜레온처럼 흡수하여, 어떤 공연무대든 친화력을 갖는 것이 이들의 강점이다. 빅밴드로서 호흡을 맞추어 청중을 휘어잡는 매력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무대를 채우는 활약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 세검정챔버오케스트라

종로구 일대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 클래식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만들었다. 구기동과 삼청동, 부암동에 거주하는 20대와 30대의 여성들로, 악기 전공자 뿐 아니라 취미로 연주하는 비전공자도 다수 있다. 이곳은 아마추어들이 배울 수 있는 모임이고, 서로 일을 나누고 도와 동아리를 3년간 이어왔다. 자녀를 기르는 일이 힘들고 정해진 연습실도 없어 1년 이상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는 말도 들었지만, 연습을 멈추지 않고 유지해냈다. 누군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를 들여 지휘자 선생님을 모셔 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했다. 이런 마음이 닿아 동네 작은 교회의 배려로 공간을 빌려 정기연습을 해왔다. 결국 평창동 뚝지리음악회 등 크고 작은 마을음악회에 가 공연을 하고, 어르신들 실비센터로 찾아가 작은 공연을 하게 되었다. 매년 가을, 겨울에 마을 주민을 초대하는 정기연주회를 직접 열게 되었으며, 아이들까지 엄마와 함께 오보에, 비올라, 바이올린을 들고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지금은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연주에 보람을 느낀다. 꼭 클래식 음악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트로트나 가곡을 준비해가 무대에서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다 한다. 종로랑 페스티벌의 큰 오케스트라 무대에 처음 섰을 때의 감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만, 무엇보다 종로랑 네트워크 모임의 다른 동아리와 콜라보 공연을 하는 꿈을 꾸고 있다.

| 소리나무가족오케스트라

교남동 주민센터의 문화강습 프로그램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30명 넘는 단원을 갖게 된 국악 오케스트라로 초등학교 아이부터 부모까지 온가족이 국악을 함께 하는 것이 특징이다. 피리, 해금, 대금, 소금, 장구, 가야금 악기 등이 모여 화합을 이루는 동아리로서, 가족들의 국악연주 모임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다. 천방지축 아이들은 연습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지만 습득력이 좋고, 상대적으로 어른들은 끈기있게 연습을 한다. 사진 한 장에 담기는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다. 그러다보니 가족사랑과 이웃사랑을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다. 종로뚝지리음악회에 꾸준히 참여한다. 이런 발표에서 일반인들로부터 뜻하지 않은 큰 호응을 얻은 것이 힘이 되어 동아리가 커졌다 한다. 더 많은 무대에 설 기회를 주는 것이 종로랑 네트워크 모임의 장점이라 기대가 크다고 한다. 열심히 하다보면 전통음악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면서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믿는다.

| 소울소리판

남녀노소가 매료될 수 있는 고은 소리를 전파하려는 단체가 있다. 바로 남도민요와 판소리를 노래하는 소울소리판이다. 해화동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10대에서 40대까지, 어린아이부터 외국인까지, 다양한 문화와 세대가 함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울은 동아리를 이끌어주는 민혜성 대표의 호로, 힐 소(素), 새 을(乙)이다. 깨끗하고 넓은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처럼 판소리 예술이 무궁무진한 표현을 한다는 뜻이다. 판소리와 남도민요를 매개로 만난 프로페셔널, 아마추어, 학생, 특히 외국인이 다함께 공연을 한다. 5월 연등회 전통문화마당 행사에 참석했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어, 함께 손잡고 강강술래 공연을 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문화교류활동을 하면서 다수 해외초청공연도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활동하는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을 위해서 한 무대에 서는 보람이 있기 때문에 종로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국악공연, 크고 작은 음악공연 무대에 서는 것이 진짜 기쁨이다. 특히 아이들이 남도민요와 판소리를 하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들의 특별한 무대에 환호하는 것을 보며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 슬로우멜로디

20대와 30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나 뜨개 동아리를 만들어나가게 된 것이 발단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공예와 뜨개 모임 슬로우멜로디를 발전시켜 왔다. 천천히 꾸준히 해야 하는 뜨개의 특성을 담아 '슬로우'라는 모임 이름을 쓰게 되었다. 귀엽게 어필하는, 양증맞은 뜨개 소품을 찾는다면 이곳에 가면 된다. 100퍼센트 천연소재를 활용하고, 순수창작 활동을 통해 뜨개 작품을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 에어팟 키링, 헤어핀, 그리로 여러 장식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꽃과 과일을 주제로 소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도토리 콘셉트로 한 장식품과 가방 아이템 등을 출품하고 있다. 대부분 혼자 시간을 보내는 뜨개 작업 대신, 이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 사귀는 뜨개질 모임을 갖는다. 뜨개 못지않게 대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여러 공예가를 만나는 종로랑 네트워크 모임에 대한 기대도 많다.

| 씨나

이전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희생을 하고 살아온 엄마, 아빠들이 모여 한국시니어종합예술원을 만들었다. 씨나는 인생2막을 펼치는 시니어모델 팀의 이름으로 50대 이상 자녀양육을 졸업해낸 35명이 모여 모델 활동을 한다. 자신들을 위해 살아보자는 모토로, 모델워킹과 라인댄스, 밸리댄스 등을 익혀나가는데, 열정과 집중력이 대단하다. 외모와 몸매 가꾸기에 있어서는 자신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처음에는 패션쇼 모델로만 활동했으나, 치매노인을 위한 위문공연에서 라인댄스를 준비해 무대의 호응을 얻은 뒤로는 아예 전문적인 라인댄스 교육을 받고 꾸준히 춤 연습을 하여 다시 한번 변신하였고, 서울시춤자랑대회 본선에 진출했고, 전국적인 춤축제인 원주댄싱카니발에서 2번 입상한 경력을 가진 실력자들이 되었다. 자신을 다듬어나가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보니, 이런 자신감과 적극성 덕분에 종로랑 추진단 위원을 맡고, 네트워크의 다른 동아리들과 콜라보 무대를 만드는 대활약을 하고 있다.

| 예술연구소303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위한 교육과 공연을 하고, 사람들이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동아리의 목표다.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예술이 다가가게 만들려고, 연극과 전시로 밑바닥을 누비며 문화예술을 전파하는 '착한' 동아리다. 팀원 모두 전업예술가가 아닌 시민예술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연출과 음악감독 외에는 무대경험이 전무한 일반인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소극장에서 '프리다 칼로'라는 작품을 창작해 선보였는데 일반인에게 어려운 미술사를 화가 프리다 칼로 이야기로 풀어낸 초연이었고, 대중에게 어렵지 않게 다가가기 위해 러닝타임도 짧게 구성했다. 이때 완성된 작품보다는 극을 만들면서 대본연습 중에 화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보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시민배우들이 성장하고 역할에 몰입해 훌륭한 해석을 내놓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관객들이 다른 화가의 작품도 이런 공연으로 만들어 줄 것인지 물을 때, 시민들이 어려운 예술을 편안하게 대하고 흥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했다.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 정말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열정을 다하는 곳으로 상업적 작품보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술을 쉽게 전하는 멋진 모임이다.

동아리인터뷰

◇ 공연

| 우레

60대 이상 어르신 주민들이 모여서 북을 치는 동아리 우레는 우리말로 천둥이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이화센터 소속으로 활약하는 동아리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팀으로 주2회 1시간 연습하던 것을 하루 4시간씩 늘려 강도 높은 연습을 하고 있다. 끈기와 암기력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해내는 연습벌레들은 지역사회에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 체력이 마음 같지 않지만, 북을 치는 순간 손목과 다리가 아픈 것을 잊고 성취감을 느낀다. 젊은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없는 애환일 수도 있다. 그 대신 이런 노력 끝에 만든 무대를 보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북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열정과 끈기가 천둥 같으니,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면 좋겠다고, 이들은 말한다.

| 울루울루우쿨렐레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종로구 노인복지관 무악센터에서 모이는 60대 이상 구성원들의 연주 동아리다. 우쿨렐레라는 악기를 배우고 합주하는 호습을 함께 익히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음악연주를 통해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가요와 가곡을 연주하는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무대를 갖기를 꿈꾸고 있다. 그래서 종로구에 있는 도서관, 양로원, 주민마을잔치, 야외공연 등 적극적으로 나서 봉사활동을 싹쓸이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들은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모임이다. 사람들에게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악기를 새롭게 배우고, 그 다음에는 즐겁게 연습하고, 그것으로 봉사활동을 즐기는 삶을 산다. 이제는 다른 동아리들과 교감하는 종로랑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서도, 마음의 행복을 누리면서 서로의 긴밀한 협조를 만들어낼 것이다.

| 작은오리

종로구노인복지관 무악센터에서 60대 이상의 종로구민이 모여 오카리나를 배우고 공연연습을 하는 동아리로 초급, 중고급반으로 나누어 연습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치매예방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연습과 함께 동아리 회원들의 유대감이 생겼고, 호흡을 맞추어 공연을 하는 도전을 하게 되어 양로원, 정독도서관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야외공간에서도 연주한다. 지금은 사회에 이를 나눠주는 봉사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프로페셔널 연주자들이 아니라도,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느낌으로 무대에 서고 봉사활동을 한다. 오카리나 악기의 특성상 숙련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조금만 열의를 갖고 연습해도 금방 소리를 내고 곡을 연주할 수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도전하여 성취감을 갖기 쉬운 악기다. 어르신들이 성실하고 꾸준히 연습하여 고난도의 연주를 하는 날을 기대하며 소울소리판 같은 공연동아리와 함께 무대를 꾸며 좋았다고 이들은 말한다. 협업을 하면 서로 돕고 자신들도 성장하기 때문인데, 이런 동아리를 만들어낸 초창기 멤버들은 자부심이 크다.

| 탱고아티스타

아마추어 댄스 팀으로, 혜화동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춤 장르는 탱고로, 특이한 점은 멤버 전원이 연기하는 배우들이라는 점이다. 아카데미에서 탱고춤을 배운 배우들끼리 따로 연습하고 공연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2016년 동아리를 결성한 사연이 있다. 지금도 계속 배우들로만 모집하고 있다. 배우들만의 특징을 살려 춤에 국한보다는 댄스와 뮤지컬 융합 장르인 '댄스컬'을 통해 드라마가 있는 탱고 춤을 시도하는 중이다. 대학로소극장 정기공연, 서울문화재단 주최 서울댄스프로젝트청년참춤, 경기도연극협회, 경기도청소년연극제 등에서 초청공연을 했다. 한외국악단, 과천한국무용팀과 함께 콜라보로 국군장병 위문공연을 하기도 했다. 뛰어난 보컬 실력자, 다른 장르의 춤을 추는 자, 안무를 구성하는 재능이 특별한 자, 공연연출을 전담하는 자, 사진작가 등 여러 재능이 모여 창의적 작품 만드는 것이 팀의 자랑이다. '연기면 연기, 춤이면 춤' 다 해내는 다재다능함이 바로 탱고아티스타의 매력이다.



04

동아리 활동공간 소개

| 동아리 활동 공간

연번	구분	공간명	위치	이용방법	문의	운영주최	공간사진	사용용도
1	자치구 직영	웰니스센터 웰니스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9	- 평일 09:00 ~ 18:00 운영 (주말, 공휴일 휴무) - 이용료 : 무료 - 전화 및 현장접수	(02) 2148-3617	종로구청 건강증진과		모임 및 회의, 기타연습공간
2	자치구 위탁	좋은공연 안내센터 세미나실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4 마로니에 공원	- 화·목·금 11:00 ~ 20:00 운영 - 전화접수	1599-7838	한국 소극장협회		모임 및 회의공간
3	자치구 위탁	창신소통 공작소	서울시 종로구 창신6가길 47	- 화 ~ 일요일 10:00 ~ 19:00 운영 (월, 신정, 명절 휴무) - 전화접수	(02) 2088-1270	종로 문화재단		모임 및 회의, 기타연습공간
4	자치구 위탁	회오리마당 주민공동 이용시설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9-272	- 평일 09:00 ~ 21:00 운영 - 전화접수 ※ 공문발송 필요	(02) 764-6364	-		모임 및 회의, 작은공연공간
5	자치구 직영	교남동 주민센터 4층 강당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154 교남동 주민센터	- 매주 월 13:00 ~ 17:00 운영 - 전화접수 ※ 공문발송 필요	(02) 2148-4032	종로구청		모임 및 회의, 기타연습공간
6	자치구 위탁	청운문학 도서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36길 40	- 화 ~ 토 10:00~22:00 일 10:00~19:00 운영 (월, 신정, 명절 휴무) - 전화접수 ※ 공문발송 필요	070- 4680-4032	종로 문화재단		모임 및 회의공간
7	자치구 위탁	아름꿈 도서관	서울시 종로구 종로58가길 19	- 월 ~ 토 09:00 ~ 19:00 운영 (일, 신정, 명절 휴무) - 전화접수 ※ 공문발송 필요	(02) 2237-6644	종로 문화재단		모임 및 회의공간
8	자치구 위탁	우리소리 도서관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47	- 월 ~ 토 09:00 ~ 18:00 운영 (일, 신정, 명절, 법정공휴일 휴무) - 전화접수 ※ 공문발송 필요	070- 4550-5015	종로 문화재단		모임 및 회의공간
9	자치구 위탁	종로노인종합 복지관 무악센터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4길 30	- 평일 09:00 ~ 18:00 토 09:00 ~ 13:00 운영 - 전화접수	(02) 6247-9900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모임 및 회의공간
10	자치구 위탁	종로노인종합 복지관(이화)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길 17-8	- 평일 09:00 ~ 18:00 토 09:00 ~ 13:00 운영 - 전화접수	(02) 742-9500~2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모임 및 회의공간

연번	구분	공간명	위치	이용방법	문의	운영주최	공간사진	사용용도
11	자치구 위탁	북촌문화센터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37	- 평일 09:00 ~ 18:00 운영 - 전화접수	(02) 2133-1371	문화다음		모임 및 회의공간
12	서울시	체부동 생활문화 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나길 3-2	- 화 ~ 일요일 10:00 ~ 22:00 운영 (월, 신정, 명절 휴무) - 이용료 3시간 6만원 (생활문화예술동아리 50% 감면) - 인터넷 및 전화접수	(02) 6272-0111	기본좋은 큐엑스		모임 및 회의, 공연공간
13	서울시	수수헌 주민공동 이용시설	서울시 종로구 송인1동 70-34 외 1필지	- 평일 09:00 ~ 21:00 운영 - 인터넷 및 전화접수	(02) 742-6115	창신송인 도시재생 협동조합		모임 및 회의공간
14	개인	한다리 중개소	서울시 종로구 창신10길 4	- 10:00 ~ 18:00 운영 - 이용료 시간당 만원 - 전화접수	070- 7584-9262	88한다리		모임 및 회의공간
15	개인	청춘여가 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피어선 빌딩 10층	- 09:00 ~ 23:00 운영 (연중무휴) - 이용료 평일 3시간 10만원 주말 3시간 12만원 - 인터넷 및 전화접수	070- 8801-1003	청춘여가 연구소		모임 및 회의공간
16	개인	하모니카 동산학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길 334 4층	- 09:00 ~ 21:00 운영 - 전화접수	(02) 744-9505	하모니카 동산학원		모임 및 회의, 기타연습공간
17	개인	오디오가이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길 63 지하 1층	- 09:00 ~ 22:00 운영 - 이용료 1시간 20만원 - 전화접수	(02) 734-3348	오디오가이		모임 및 회의, 공연공간
18	개인	민송아트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44 종원빌딩	- 10:00 ~ 22:00 운영 - 이용료 60만원 - 전화접수	(02) 766-8134	민송아트홀		발표 및 공연공간
19	개인	인생은 아름다와라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길 11길 20	- 10:00 ~ 23:00 운영 - 이용료 1시간 10만원 - 전화접수	010- 8538-3839	인생은 아름다와라		모임 및 회의, 공연공간
20	개인	북촌탁구	서울시 종로구 계동 2길 4번지	- 10:00 ~ 22:00 운영 - 전화접수	010- 9418-5020	북촌탁구		모임 및 회의, 공연공간

2019 종로랑 생활문화지도

주 최 | 종로구, 종로문화재단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기 획 | 종로문화재단 문화기획팀
편집·디자인 | 안녕소사이어티
발 행 처 | (재)종로문화재단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 6층 Tel. 02-6203-1167
종로구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Tel. 02-2148-1806
발 행 월 | 2019. 12.

※ 발행처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